

17년 만의 첫 태극마크... 한화·대표팀 안방 모두 품은 최재훈

한화 주전 포수에서 대표팀 주전 포수로
2026 WBC 엔트리 승선 가능성도 '주목'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주전 포수 최재훈이 프로 데뷔 17년 만에 국가대표 포수 마스크를 쓴다.

최재훈은 8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5 K-베이스볼 시리즈 체코와의 평가전 1차전에 선발 포수로 나선다.

2008년 두산 베어스의 육성 선수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첫 경기부터 안방을 책임진다. 당초 이번 대표팀 엔트리에 포함될 박동원(LG 트윈스)의 선발 출전이 유력해 보였으나 손목 불편으로 빠지면서 최재훈이 마스크를 쓰게 됐다.

최재훈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기까지 굵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두산 시절엔 양의지(두산)라는 거대한 산에 가파르게 주전 기회를 잡기 어려웠고, 2016년부터 박세혁(NC 다이노스)까지 주전 경쟁에 뛰어들어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돌파구가 필요했던 그는 결국 2017년 초 한화로 트레이드됐다.

이적은 야구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한화에서 주전 포수로 입지를 굳혔다. 덕분에 2021시즌 종료 후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어 5년 54억원의 대형 계약을 맺었다.

이제는 베테랑이라는 호칭이 익숙해졌지만, 국가대표와의 인연은 좀처럼 달지 않았다. 양의지, 강민호(삼성 라이온즈), 박동원 등 다른 팀 주전 포수들에 비해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성적도 다소 아쉬웠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2025시즌 KBO 리그를 평정한 '극강의 에이스' 코디 폰세(한화)와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진가를 드러냈다. 폰세는 KBO 역대 세 번째 투수 4관왕(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승투)을 달성하고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까지 세우는 내내 모든 공을 포수 최재훈에게 돌렸다.

타석에서도 제 몫을 다했다. 올해 정규 시즌에서 타율 0.286(269타수 77안타) 1홈런 35타점 28득점을 기록, 쓸쓸한 활약을 펼쳤다.

그렇게 꾸준함과 묵묵함을 인정받은 최재훈은 박동원, 조형우(SSG 랜더스)와 함께 대표팀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부폰 기대감을 안고 첫 국제 무대에 나서게 됐지만, 체력 부담도 안고 있다. 그는 지난날 18일부터 31일까지 벌어진 삼성과의 플레이오프(PO·5전3선승제)와 LG와의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10경기 모두 선발 출전했다. 포수라는 포지션 특성상 피로도가 높는데, 연이어 큰 경기를 치르며 체력 소모가 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최재훈을 선택했다. 류 감독은 KS를 치른 LG·한화 선수들을 1차전에 기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최재훈은 예외였다.

류 감독은 전날(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대표팀 소집 훈련에서 최재훈을 만나 "PO와 KS를 치른 선수들은 모두 지쳤을 것이다. 특히 포수라는 포지션은 체력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자리"라면서도 "최



재훈은 내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엔트리 구상에도 포함된 선수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경험이 없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제 대회 감각을 익혔으면 좋겠다"고 선택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투수들과의 호흡을 미리 맞춰보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런 점에서 이번 대회에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전에서 좋은 인상을 남긴다면 2026 WBC 엔트리 승선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대표팀 안방을 맡은 최재훈이 이번 평가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

남구 "정신장애 풋살팀, 힘찬 드리블 응원"

클라우드 FC 선수단 내년 '세네갈 대회' 출전
지도자도 없는 여건에서 순수 자비로 팀 운영
연말까지 2,000만원 목표 '고향사랑 기부 모금'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고향 사랑 지정기부로 모은 후원금으로 내년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열리는 '정신장애인 풋살 세계 대회' 출전을 준비 중인 남구 정신장애인 풋살팀 클라우드 FC 지원에 나선다.

남구는 7일 "정신장애인의 신체적 건강 회복과 단체 활동을 통한 소통 능력 향상 및 편견 없는 사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2,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남구 정신장애인 풋살팀 운영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FC는 사회복귀 및 재활 훈련 시설인 요한빌리지를 이용하고 있는 20~30대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팀이다.

선수 16명과 자원봉사 및 부모로 구성된 운영진 6명이 풋살팀에 몸담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에 풋살 동아리를 만든 뒤 이듬해부터 매년 풋살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또 올해 1월에는 자비를 들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1회 정신장애인 아시아 풋살대회에 출전했다.

팀의 다음 목표는 오는 2026년 6월에 열리는 세네갈 세계 대회인데,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정신장애인 청년들만 구성된 팀 여건상 선수 기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여건도 매우 열악해 후원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클라우드 FC팀 선수들이 세네갈을 향한 힘찬 드리블을 이어가고, 풋살 운동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올해 연말까지 고향사랑 기부금 2,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후원자를 모집한다.

클라우드 FC팀의 당찬 발걸음을 후원하는 방법은 고향사랑 기부 플랫폼인 위기비 홈페이지(www.wegive.co.kr)에서 지정기부 코너에 들어간 뒤 기부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남구는 내년에도 풋살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향사랑 지정기부 모금 활동으로 후원금 2,000만원을 모금할 계획이다.

정신장애인 풋살팀 지정기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요한빌리지(☎ 367-3369) 또는 남구청 주민자치과(☎ 607-2882)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명수 기자

또 황인범 없는 흥명보호, 11월 A매치서 선보일 중원 조합은?

10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서 소집... 백승호·김진규·카스트로프 등 경쟁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흥명보 감독이 11월 A매치에서 선보일 중원 조합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흥명보호는 오는 10일 11월 A매치를 대비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서 소집한다.

이번 2연전에서는 볼리비아(14일·대전 월드컵경기장), 가나(18일·서울월드컵경기장)를 만난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컵 개최 전년도 마지막 A매치로 많은 이목이 쏠린다.

월드컵 본선까지 A매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11월 일정을 통해 최대한 베스트 전력을 시험해야 하지만, '핵심 미드필더' 황인범(29·페예노르트)이 부상 낙마하는 변수를 맞았다.

황인범은 흥명보호 출범 이후 꾸준히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 안 될 존재다.

황인범의 소속팀인 페예노르트(네덜란드) 로빈 판페르시 감독에 따르면 최소 6주에서 최대 8주까지 결장한다.

이에 황인범은 이번 11월 A매치에서 빠지게 됐다. 지난 9월 A매치 때도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한 적이 있던 터라 아쉬움은 배가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대체 선수를 발탁하지

않아, 선수가 27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들었다.

자연스럽게 황인범의 중원 파트너 찾기도 내년 3월 A매치로 미뤄졌다.

흥 감독은 또 한 번 새로운 중원 조합을 선보일 전망이다.

11월에는 원두재(코르파칸), 백승호(버밍엄), 엔스 카스트로프(민헨글라트바흐), 김진규(전북현대), 권혁규(뉴트)가 선의 경쟁을 벌인다.

이번에도 스리백 전술을 택한다면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흥 감독의 선택을 받는다.

많이 뛰는 중원을 원한다면 카스트로프

가 선발 출격할 수 있다.

흔히 태극전사인 카스트로프는 9월, 10월 꾸준히 흥 감독의 부름을 받고 있다.

최근 넘치는 의욕에 카드를 자주 받는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왕성한 활동량과 높은 적극성 등은 그의 큰 장점이다.

꾸준하게 기용돼 온 백승호, 김진규는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미드필더다. 백승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으로 승격한 버밍엄에서 주전으로 활약 중이며, 김진규는 K리그1 전북 현대의 조기 우승 주역이다.

두 선수 모두 중원 조율 능력, 넓은 시야 등을 바탕으로 흥명보호 허리를 강하게 만

들 수 있는 자원들이다.

수비형으로 분류한다면 원두재와 권혁규가 안정성을 더할 자원이다.

원두재는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 시절 흥 감독과 사제의 연을 맺었다. 흥 감독의 축구를 잘 이해하는 자원인 만큼, 안정성과 유기적인 움직임에 무게를 둔다면 원두재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프랑스 리그1 낭트르 이적해 주전으로 활약 중인 권혁규는 올해 처음으로 흥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연령별 대표팀은 두루 거쳤지만, 아직 A대표 경험이 없는 그가 깜짝 출전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뉴스

김 **전복** **대파** **올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진도아리랑물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